

# 1985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研究

1985 Freshmen's Survey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金斗和\*, 任乙化\*\*

Kim, Doo-hwa

Im, Eul-hwa

## 目 次

I. 緒 言	4. 資料處理
II. 調査의 方法 및 内容	III. 結果 및 解釋
1. 調査對象	IV. 結 論
2. 調査内容	1. 要約
3. 調査節次	2. 提言

## I. 緒 言

대학생활은 지시적, 수용적 생활에서 이탈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수용하는 시기이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환경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갖는 동시에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사고적 고집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생산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소에서는 매년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입생에 관련된 교육계획 및 효율적 지도방안과 실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학문을 중심으로한 학생 지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輔導部長

\*\* 社會科學大學 觀光學科 助教

## Ⅰ. 調查의 方法 및 內容

### 1. 調查對象

1985 학년도 신입생 1,83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調查內容

본 연구는 총 59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人的事項

본적지, 성장지, 종교, 연령, 입학전 재수여부

#### 2) 家族事項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학력, 가족수, 출생순위, 가족 거주지, 보호자의 직업, 주거형태, 주거방식

#### 3) 經濟事情

가정의 월수입 정도, 학비 조달자, 가정의 경제수준, 학비의 충족도, 부직활동 참여여부, 부직 희망이유, 한달 쓰는 평균 용돈

#### 4) 家族 및 對人關係

개인적인 일 논의, 자신과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 가정의 분위기, 가정에서의 문제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의 기대정도, 친구의 수, 대인관계의 만족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유, 원하는 친구의 유형,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이성교제의 경험, 앞으로의 이성관계 결정

#### 5) 大學 및 學科志望

제주대학교 지원동기, 학과 결정요인,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학과 선택시기,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졸업정원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6) 大學生活

입학후 거주예정지,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난제, 대학생활에서의 비중, 희망하는 씨클 활동분야,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독서계획, 독서종류, 어학 훈련계획, 어학 훈련방법, 입학후 여가 선용계획, 교내외 학생 활동에의 참여,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 7) 卒業後의 計劃

대학 졸업후의 계획, 대학 졸업후 원하는 직업, 직업 선택시의 기준,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 3. 調查節次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 1985 년 2 월 23 일 ~ 29 일 ) 동안 설문조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수는 신입생 1,834 명 중 1,664 명으로 90.0 %의 회수율을 보였다.

〈 표-1 〉 대학별 성별 구성비

대 학	남	여	계
인 문 대 학	46	194	240
사 회 과 학 대 학	265	107	372
사 범 대 학	95	191	286
농 과 대 학	221	19	240
해 양 과 학 대 학	187	5	192
이 공 대 학	277	59	336
야 간 강 좌 부	120	48	168
합 계	1,211	623	1,834

〈 표-2 〉 대학별 설문지 회수율

대 학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240	202	84 %
사 회 과 학 대 학	372	352	95 %
사 범 대 학	286	275	96 %
농 과 대 학	240	224	93 %
해 양 과 학 대 학	192	167	87 %
이 공 대 학	336	302	90 %
야 간 강 좌 부	168	142	85 %
합 계	1,834	1,664	90 %

## 4. 資料處理

수집된 자료인 설문응답지 1,664 매의 처리를 설문한 문항별, 단과 대학별, 답항별로 그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표작하였다.

## Ⅲ. 結果 및 解釋

## 1. 人的事項

## 1) 본적지

신입생들의 본적지별 분포는 < 표-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북제주군이 37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시가 22.9 %, 남제주군이 18.9 %, 서귀포시가 13.5 %의 순이며 도외에서는 전남이 1.86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2 %, 경기도가 0.9 %, 경북이 0.7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 출신이 전체의 92.3 %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제주도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lt; 표-3 &gt; 본 적 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52	25.74	84	23.86	68	24.73	32	14.29	46	27.54	59	19.54	40	28.17	381	22.90
서귀포시	38	18.81	42	11.93	44	15.27	43	19.20	18	10.78	30	9.93	11	7.75	226	13.58
북제주군	63	31.19	135	38.35	92	33.45	66	29.46	49	29.34	152	50.33	59	41.55	616	37.02
남제주군	42	20.79	64	18.18	53	19.27	66	29.46	32	19.16	37	12.25	22	15.49	316	18.99
서울					4	1.5	1	0.45	6	3.59	9	2.98			20	1.20
충북			1	0.28			1	0.45	1	0.60					3	0.18
충남									2	1.20					2	0.12
경북	1	1.0	2	0.57	1	0.36	3	1.34	1	1.60	2	0.66	1	0.70	12	0.72
경남	1	0.5	5	1.42	1	0.36	3	1.34			6	1.99	1	0.70	17	1.02
전북	1	0.5	2	0.57			1	0.45	2	1.20			1	0.70	7	0.42
전남			9	2.56	1	0.36	6	2.68	7	4.19	3	0.99	5	3.52	31	1.86
강원도					1	0.36	1	0.45	1	1.60	2	0.66			5	0.30
부산					2	0.73			2	1.20					4	0.24
경기도	3	1.5	5	1.42	3	1.09	1	0.45			2	0.66	2	1.41	16	0.96

(이하 무응답자 제외)

## 2) 성장지

신입생들의 주된 성장지는 < 표-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가 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제주군이 23.5 %, 남제주군이 16.3 %, 서귀포시가 15.7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로 보아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94.0%가 주로 제주도에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4 > 성 장 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84	41.58	122	34.66	119	43.27	50	23.32	59	35.33	150	49.67	58	40.85	642	38.58
서귀포시	43	21.29	51	14.49	54	19.64	55	24.55	18	10.78	28	9.27	13	9.15	262	15.75
북제주군	35	17.33	106	30.11	44	16.0	54	24.11	41	24.55	70	23.18	42	29.58	392	23.56
남제주군	38	18.81	59	16.76	44	16.0	49	21.88	30	17.96	31	10.26	21	14.79	272	16.35
서 울	1	0.46			5	1.82	4	1.79	4	2.40	15	4.97	3	2.11	32	1.92
충 북									1	0.60					1	0.06
충 남									2	1.20					2	0.12
경 북							1	0.45	2	1.20	1	0.33	1	0.70	5	0.30
경 남			4	1.14			3	1.34	6	3.59	3	0.99	1	0.70	17	1.02
전 북			2	0.57			1	0.45							3	0.18
전 남			3	0.85	1	0.36	4	1.79	3	1.80	3	0.99	2	1.41	16	0.96
강 원 도					2	0.73			1	0.60	1	0.33			4	0.24
부 산	1	0.46			2	0.73	2	0.89							5	0.30
경 기 도			2	0.57	2	0.73									4	0.24

3) 종 교

신입생들의 종교별 분포는 < 표-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가 23.5%, 개신교가 8.1%, 천주교가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입생 전체의 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 할 만하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62.6%, 이공대학이 60.9%, 해양과학대학이 58.6%, 사범대학이 54.5%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5 > 종 교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개 신 교	41	20.30	29	8.24	25	9.09	13	5.80	7	4.19	11	3.64	10	7.04	136	8.17
천 주 교	23	11.39	15	4.26	33	12.00	18	8.04	8	4.79	14	4.64	10	7.04	121	7.27
불 교	49	24.26	89	25.28	50	18.18	65	29.02	40	23.95	75	24.83	24	16.90	392	23.56
천 도 교			3	0.85	1	0.36	4	1.79	1	0.60	2	0.66	2	1.41	13	0.78
유 교			8	2.27	3	1.09	6	2.68	2	1.20	5	1.66	1	0.70	25	1.50
기 타			10	2.84	3	1.09	13	5.80	4	2.40	3	0.99	6	4.23	39	2.34
없 다	84	41.58	185	52.56	150	54.55	99	44.20	98	58.68	184	60.93	89	62.68	889	53.43

6 學生生活研究

4) 연 령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는 < 표-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만 18세가 51.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19세가 25.5%, 만 17세가 9.3%, 만 20세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91.2%가 만 17세, 18세, 19세, 20세 층에 속하고 있다.

< 표-6 > 연령 ( 3월 1일 현재 )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16세이하			9	2.56	1	0.36	6	2.68	2	1.20	12	3.97			30	1.80
만 17세	32	15.84	21	5.97	26	9.45	25	11.16	10	5.99	35	11.59	7	4.93	156	9.38
만 18세	122	60.40	166	47.16	161	58.55	90	40.18	86	51.50	155	51.32	69	48.59	849	51.02
만 19세	43	21.29	107	30.40	63	22.91	67	29.91	48	28.74	70	23.18	27	19.01	425	25.54
만 20세	2	0.99	22	6.25	10	3.64	18	8.04	18	10.78	15	4.97	6	4.23	91	5.47
만 21세			4	1.14	4	1.45	4	1.79			3	0.99	4	2.82	19	1.14
만 22세			4	1.14			5	2.23			3	0.99	2	1.41	14	0.84
만 23세			7	1.99	1	0.36	4	1.79			4	1.32	9	6.34	25	1.50
만 24세이상			12	3.41	7	2.55	5	2.23	3	1.80	5	1.66	18	12.68	50	3.00

5) 입학전 재수여부

신입생들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 재수여부는 < 표-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8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년 재수생이 13.4%, 2년 이상 재수생이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18.2%가 입학하기 전에 재수 및 2년 이상 재수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91.5%, 사범대학이 89.0%, 해양과학대학이 87.4%, 농과대학이 78.5%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7 > 입학전 재수여부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다	185	91.58	268	76.14	245	89.09	176	78.57	146	87.43	240	79.47	90	63.38	1,360	81.13
1년재수	16	7.92	63	17.90	22	8.00	33	14.73	20	11.98	37	12.25	33	23.24	224	13.46
2년이상재수			21	5.97	8	2.91	15	6.70	1	0.60	17	5.63	19	13.38	81	4.87

## 2. 家族事項

### 1) 부모의 생존여부

신입생들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 표-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친 생존이 8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편모가 10.1%, 편부가 3.9%, 부모사망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결혼가정출신이 1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양친 슬하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야간강좌부가 결혼가정출신이 2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과대학이 19.9%, 사회과학대학이 18.9% 등의 순이며 해양과학대학이 8.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8 > 부모의 생존여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모두생존	178	88.12	280	79.55	234	85.09	178	79.91	153	91.62	274	90.73	107	75.35	1,405	84.44
부 생 모 사	1	0.50	14	3.98	5	1.82	20	8.93	3	1.80	13	4.30	9	6.34	65	3.91
모 생 부 사	22	10.89	50	14.20	35	12.73	19	8.48	7	4.19	10	3.31	26	18.31	169	10.16
부 모 사 망			3	0.89	1	0.36	6	2.68	4	2.40	5	1.66			19	1.14

### 2) 보호자와의 관계

신입생들의 보호자와의 관계는 < 표-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7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14.0%, 형, 언니, 누나, 오빠가 5.8%, 조부가 0.9%, 조모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9 > 보호자와의 관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	162	80.20	264	75.00	211	76.73	177	79.02	128	76.65	202	66.89	108	76.06	1,252	75.24
모	23	11.39	55	15.63	42	15.27	26	11.61	16	9.58	43	14.24	28	19.72	233	14.00
형, 언니, 누나, 오빠	6	2.97	15	4.26	5	1.82	8	3.57	6	3.59	52	17.22	5	3.52	97	5.83
조 부			10	2.84	2	0.73					3	0.99			15	0.90
조 모			3	0.85			7	3.13	1	0.60					11	0.66
친 척	1	0.50					6	2.68			1	0.33	1	0.70	9	0.54
기 타			2	0.57					6	3.59	1	0.33			9	0.54

### 3) 보호자의 연령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연령은 < 표-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가 42.5%로 가장 많고

8 學生生活研究

다음으로 40대가 40.8%, 60대가 9.9%, 30대가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연령은 50대와 40대가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 표-10 > 보호자의 연령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20 대	2	0.99	4	1.14			6	2.68	1	0.60	6	1.99	3	2.11	22	1.32
30 대	2	0.99	3	0.85	1	0.36	3	1.34	1	0.60	44	14.57	2	1.41	56	3.37
40 대	102	50.50	146	41.48	126	45.82	57	25.45	71	42.51	126	41.72	51	35.92	679	40.81
50 대	89	44.06	151	42.90	133	48.36	128	57.14	75	44.91	70	23.18	62	43.66	708	42.55
60 대	3	1.49	41	11.65	14	5.09	19	8.48	15	8.98	52	17.22	22	15.49	66	9.98
70 대	3	1.49	4	1.14	1	0.36	10	4.46	4	2.40			2	1.41	24	1.44
80 대	1	0.50	1	0.28							2	0.66			4	0.24

4) 보호자의 학력

< 표-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2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졸이 23.6%, 중졸이 23%, 대졸 이상이 11%, 무학력이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보호자가 대졸 이상인 경우는 이공대학이 14.5%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범대학이 13.4%, 인문대학이 11.8%의 순이며 야간강좌부는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11 > 보호자의 학력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무 학	3	1.49	25	7.10	8	2.91	10	4.46	9	5.39	39	12.91	12	8.45	106	6.37
한문수학	4	1.99	9	2.56	4	1.45	7	3.13	10	5.99	54	17.88	7	4.93	95	5.71
국 졸	44	21.78	96	27.27	58	21.09	57	25.45	48	28.74	44	14.57	47	33.10	394	23.68
중 졸	62	30.69	80	22.73	51	18.55	57	25.45	51	30.54	53	17.55	29	20.42	383	23.02
고 졸	62	30.69	114	32.39	116	42.18	72	32.14	35	20.96	63	20.86	35	24.65	497	29.87
대졸이상	24	11.88	28	7.95	37	13.45	21	9.38	14	8.38	49	16.23	10	7.04	183	11.00

5) 가족수

신입생들의 가족수는 < 표-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명이 21.3%, 7명이 17.3%, 8명 이상이 15%, 4명이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 표-12 > 가 족 수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1	인			6	1.70	1	0.36	3	1.34			2	0.66			12	0.72
2	인			6	1.70	3	1.09	6	2.68	1	0.60	1	0.33	1	0.70	18	1.08
3	인	4	1.88	10	2.84	4	1.45	14	6.25	4	2.40	48	15.89	10	7.04	94	5.65
4	인	10	4.95	30	8.52	21	7.64	35	6.25	14	8.38	49	16.23	17	11.97	176	10.58
5	인	33	16.34	84	23.86	55	20.00	42	18.75	43	25.75	68	23.52	30	21.13	355	21.33
6	인	50	24.75	94	26.70	82	29.82	58	25.89	47	28.14	93	30.79	33	23.24	457	27.46
7	인	48	23.76	68	19.32	57	20.73	39	17.41	34	20.36	12	3.97	31	21.83	289	17.37
8	인 이상	47	23.27	54	15.34	50	18.18	26	11.61	24	14.37	29	9.60	20	14.08	250	15.02

6) 출생순위

신입생들의 출생순위는 < 표-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라고 응답한 학생이 24.2%로 가장 많고 두번째가 19.7%, 세번째가 19%, 네번째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43.9%가 첫째 또는 둘째 아들 및 딸들임을 알 수 있다.

첫째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27.4%, 사회과학대학이 26.7%, 해양과학대학이 25.7%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13 > 출생순위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첫 번째		50	24.75	94	26.70	80	29.09	41	18.30	43	25.75	57	18.87	39	27.46	404	24.28
두 번째		38	18.81	81	23.01	55	20.00	46	20.54	33	19.76	48	15.89	27	19.01	328	19.71
세 번째		45	22.28	61	17.33	49	17.82	44	19.64	32	19.16	59	19.54	27	19.01	317	19.05
네 번째		28	13.86	56	15.91	41	14.91	45	20.09	23	13.77	34	11.26	21	14.79	248	14.90
다섯 번째		21	10.40	31	8.81	33	12.00	34	15.18	23	13.77	55	18.21	13	9.15	210	12.62
여섯 번째		7	3.47	10	2.84	11	4.00	7	3.13	9	5.39	29	9.60	9	6.34	82	4.93
일곱 번째		7	3.47	9	2.56	4	1.45	4	1.79	3	1.80	17	5.63	4	2.82	48	2.88
여덟 번째		1	0.50	4	1.14			2	0.89	1	0.60	3	0.99	1	0.70	12	0.72
아홉 번째		1	0.50	5	1.42			1	0.45					1	0.70	8	0.48

7) 가족 거주지

신입생들의 가족 거주지는 < 표-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제주시가 3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제주군이 23.1%, 남제주군이 18.9%, 서귀포시가 15.6%의 순이며 도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0.73%, 전남이 0.9%, 서울이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가족의 95.9%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거주지가 도외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해양과학대학이 9.6%, 농과대학이 5.7%, 야간강좌부가 4.2%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14 > 가족 거주지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93	46.04	144	40.91	124	45.09	65	29.02	63	37.72	89	29.47	60	42.25	638	38.34		
서귀포시	45	22.28	49	13.92	53	19.27	50	22.32	18	10.78	33	10.93	12	8.45	260	15.63		
북제주군	30	14.85	97	27.56	40	14.55	48	21.43	36	21.56	90	29.80	44	30.99	385	23.14		
남제주군	34	16.83	49	13.92	48	17.45	47	20.98	34	20.36	83	27.48	20	14.08	315	18.93		
서울					1	0.36	3	1.34			4	1.32			8	0.48		
충북									2	1.20					2	0.12		
충남									4	2.40					4	0.24		
경북							2	0.89	3	1.80	1	0.33			6	0.36		
경남			4	1.14	1	0.36	3	1.34	2	1.20			2	1.41	12	0.73		
전북			2	0.57					4	2.40					6	0.36		
전남			5	1.42	1	0.36	5	2.23	1	0.60	1	0.33	3	2.11	16	0.96		
강원도					1	0.36					1	0.33			2	0.12		
부산					2	0.73	1	0.45							3	0.16		
경기도			2	0.57	4	1.45							1	0.70	7	0.42		

8) 부모의 직업

신입생들의 부모의 직업 분포는 < 표-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이 5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이 17.6%, 공무원이 7.1%, 교육공무원이 6.6% 등의 순이며 그외 여러 직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 표-15 〉 부모의 직업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농 업	98	48.51	201	57.10	128	46.55	140	62.50	99	57.49	128	42.38	91	64.08	885	53.19
상 업	49	24.26	49	13.92	46	16.73	38	16.96	23	13.77	65	21.52	24	16.90	294	17.67
공 무 원	25	12.38	17	4.80	26	9.45	6	2.68	4	2.40	30	9.93	11	7.75	119	7.15
회 사 원	10	4.95	20	5.68	14	5.90	6	2.68	7	4.19	10	3.31	3	2.11	70	4.21
은 행 원	1	0.50													1	0.06
어 업	1	0.50	9	2.56	6	2.18	4	1.79	13	7.78			2	1.41	35	2.10
속 사	1	0.50													1	0.06
교육공무원	10	4.95	13	3.69	17	6.18	11	4.91	5	2.99	54	17.88			110	6.61
노 동	1	0.50	6	1.70	5	1.82	3	1.34	3	1.80	5	1.66	3	2.11	26	1.56
제 조 업	1	0.50													1	0.06
운 수 업	1	0.50	8	2.27	6	2.18	4	1.79	2	1.20			3	2.11	24	1.44
약 사	1	0.50					1	0.45	2	1.20			1	0.70	5	0.30
공 업	1	0.50	5	1.42	2	0.73							1	0.70	9	0.54
서비스업	1	0.50			1	0.36									2	0.12
목 공 업	1	0.50											1	0.70	2	0.12
의 사													1	0.70	1	0.06
인 쇄 업							1	0.45					1	0.70	2	0.12
무 직			24	6.19	15	5.45	8	3.57	9	5.40	10	3.31			66	3.99
군 인					1	0.36	1	0.45							2	0.12
수 의 사					1	0.36	1	0.45							2	0.12
토목·건축					6	2.18									6	0.36
언 론 인					1	0.36									1	0.06

## 9) 주거형태

신입생들의 주거형태는 〈 표-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 8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가주택이 8.1%, 아파트(연립주택)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92.5%, 농과대학이 92.4%, 사회과학대학이 90%, 야간강좌부가 88.7%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16 > 주거형태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단독주택	187	92.57	317	90.06	233	84.73	207	92.41	148	88.62	220	72.85	126	88.73	1,438	86.42
아파트 (연립주택)	5	2.48	7	1.99	13	4.73	2	0.89	3	1.80	29	9.60	7	4.93	66	3.97
상가주택	5	2.48	23	6.53	21	7.64	13	5.80	12	7.19	53	17.55	9	6.34	136	8.17

10) 주거방식

신입생들의 주거방식은 < 표-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가 79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세가 11.7 %, 월세가 7.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79.0%가 자기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가거주 학생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농과대학이 91.5 %, 인문대학이 85.1 %, 사회과학대학이 82.6 %, 야간강좌부가 76.7 %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17 > 주거방식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172	85.15	291	82.67	211	76.73	205	91.52	127	76.05	201	66.56	109	76.76	1,316	79.09
전 세	24	11.88	40	11.36	37	13.45	12	5.36	33	19.76	30	9.93	20	14.08	196	11.78
월 세	3	1.49	13	3.69	17	6.18	4	1.79	4	2.40	69	22.85	13	9.15	123	7.39

3. 經濟事情

1) 가정의 월수입 정도

신입생들의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 표-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 29 만원이 2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 만원 이하가 26.5 %, 30 ~ 39 만원이 21.1 %, 40 ~ 49 만원이 10.4 %의 순이며, 70 만원 이상은 2.7 %를 차지하고 있다.

< 표-18 > 가정의 월수입 정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20 만원 이하	26	12.87	100	28.41	65	18.47	74	33.04	65	38.92	61	20.20	51	35.92	442	26.56
20-29 만원	46	22.77	88	25.00	64	23.27	64	28.57	36	21.56	123	40.73	38	26.76	459	27.58
30-39 만원	63	31.19	80	22.73	53	19.27	41	18.30	34	20.36	58	18.21	23	16.20	352	21.15
40-49 만원	31	15.35	23	6.53	38	13.82	24	10.71	10	5.99	36	11.92	12	8.45	174	10.46
50-59 만원	12	5.94	16	4.55	13	4.73	12	5.36	8	4.79	20	6.62	8	5.63	89	5.35
60-69 만원	2	0.99	9	2.56	8	2.91	2	0.89	2	1.20			2	1.41	25	1.50
70 만원 이상	7	3.47	10	2.84	5	1.82	7	3.13	5	2.99	4	1.32	8	5.63	46	2.76

2) 학비부담

< 표-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7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15.6%, 형, 언니, 누나, 오빠가 3.9%, 본인이 3%, 조부모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 대부분이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17.6%, 사회과학대학이 4.2%, 해양과학대학이 2.4% 등의 순이다.

< 표-19 > 학비부담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	158	78.22	237	67.33	219	79.64	192	85.71	120	71.86	183	60.60	86	60.56	1,195	71.81
모	26	12.87	66	18.75	39	14.18	20	8.93	25	14.97	61	20.20	23	16.20	260	15.63
조 부모	1	0.50	14	3.98			3	1.34	1	0.60	14	4.64	0		33	1.98
형, 언니, 누나, 오빠	2	0.99	19	5.40	7	2.55	6	2.68	7	4.19	18	5.96	6	4.23	65	3.91
본 인	1	0.50	15	4.26	4	1.45	1	0.45	4	2.40			25	17.61	50	3.00
친 척	1	0.50	1	0.28	1	0.36	1	0.45			3	0.99	1	0.70	8	0.48
기 타					1	0.36	1	0.45	6	3.59	23	7.62	1	0.70	32	1.92

3) 가정의 경제수준

신입생들의 가정경제 수준은 < 표-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35.6%, 곤란하다가 10.3%, 매우 곤란하다가 5.1%, 충분한 여유가 있다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62.8%, 사회과학대학이 43.1%, 농과대학이 42.8%의 순이며, 야간강좌부가 3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20 > 가정의 경제 수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충분한 여유	4	1.88	27	7.67	2	0.73	18	8.04			24	7.95	4	2.82	79	4.74
비교적 여유	127	62.87	152	43.18	115	41.82	96	42.86	63	37.72	119	39.40	53	37.32	725	43.57
겨우 유지	46	22.77	123	34.94	108	39.27	88	39.29	79	47.31	99	32.78	50	35.21	593	35.64
곤란함	16	7.92	39	11.08	34	12.36	12	5.36	22	13.17	22	7.28	27	19.01	172	10.34
매우 곤란함	4	1.98	11	3.13	14	5.09	10	4.46	3	1.80	35	11.59	8	5.63	85	5.11

4) 학비 충족도

신입생들의 학비 충족도는 < 표-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5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족하다는 학생이 27.1%, 충분하다는 학생이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33.1%, 이공대학이 20.8%, 사범대학이 18.5%의 순이며, 야간강좌부가 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21 > 학비 충족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충분하다	67	33.17	47	13.35	51	18.55	37	16.52	19	11.38	63	20.86	14	9.86	288	17.91
그저 그렇다	93	46.04	200	56.82	153	55.64	114	50.89	100	59.88	177	58.61	73	51.41	910	54.69
부족하다	41	20.30	105	29.83	68	24.73	73	32.59	48	28.74	62	20.53	55	38.73	452	27.16

5) 부직활동 참여여부

신입생들의 부직활동 참여여부는 < 표-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6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6.7%, 꼭 해야만 하겠다고 14.0%, 원하지 않는다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22.1%만이 부직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표-22 > 부직(아르바이트) 활동 참여 여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원하지 않는다	1	0.50	19	5.40	9	3.27	20	8.93	7	4.19	21	6.95	13	9.15	90	5.41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30	14.85	62	17.61	42	15.27	47	20.98	23	13.77	55	18.21	19	13.38	278	16.71
여건이 주어진 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147	72.77	210	59.66	191	69.45	132	58.93	108	64.67	192	63.58	66	46.48	1046	62.86
꼭 해야만 하 겠다	15	7.43	55	15.63	33	12.00	25	11.16	28	16.77	34	11.26	44	30.99	234	14.06

6) 부직 희망 이유

신입생들의 부직 희망 이유는 < 표-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비마련을 위해서가 26.0%, 자립정신·책임감·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가 21.0%, 용돈 마련을 위해서가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마련을 위해서 부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45.0%, 해양과학대학이 31.1%, 농과대학이 30.8%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23 > 부직 희망 이유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마련을 위해서	31	15.35	82	23.30	62	22.55	69	30.80	52	31.14	74	24.50	64	45.07	434	26.08
용돈마련을 위해서	28	13.86	73	20.74	69	25.09	31	13.84	30	17.96	53	17.55	31	21.83	315	18.93
사회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81	40.10	120	34.09	66	24.00	60	26.79	52	31.14	97	32.12	26	18.31	502	30.17
자립정신, 책임감,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51	25.25	55	15.63	64	23.27	55	24.55	27	16.17	77	25.50	21	14.79	350	21.03

7) 한달 평균 쓰는 용돈

신입생들의 한달 평균 쓰는 용돈은 < 표-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천원에서 1만원이 3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원 이하가 22%, 1만원에서 2만원이 17.9%, 2만원에서 3만원이 12.6%, 3만원에서 4만원이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24 > 한달 평균 쓰는 용돈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5천원 이하	36	17.82	82	23.30	61	22.18	56	25.00	38	22.75	60	19.87	34	23.94	367	22.06
5천원-1만원	86	42.57	120	34.09	96	34.91	77	34.38	66	39.52	142	47.02	35	24.65	622	37.38
1만원-2만원	36	17.82	59	16.76	56	20.36	40	17.86	26	15.57	31	10.26	38	26.76	286	17.19
2만원-3만원	25	12.38	42	11.93	36	13.09	37	16.52	25	14.97	35	11.59	11	7.75	211	12.68
3만원-4만원	14	6.93	25	7.10	13	4.23	8	3.57	6	3.59	29	9.60	10	7.04	105	6.31
4만원-5만원	5	2.48	9	2.56	3	1.09			6	3.59	1	0.33	6	4.23	30	1.80
5만원 이상			6	1.70	3	1.09	5	2.23			3	0.99	8	5.63	25	1.50

#### 4. 家族 및 對人關係

##### 1) 가족중 개인적인 일 논의

가족 중에서 누구와 주로 개인적인 일을 논의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의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형, 누나, 오빠, 언니가 27.8%, 아버지가 21.1%, 의논않음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25 > 가족 중 개인적인 일 논의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4	11.88	78	22.16	40	14.55	56	25.00	31	18.56	85	28.15	38	26.76	352	21.15
모	67	33.17	107	30.40	105	29.83	47	20.98	56	33.53	59	19.54	42	29.58	483	29.03
형, 누나, 오빠, 언니	71	35.15	108	30.68	84	23.86	71	31.70	38	22.75	57	18.87	35	24.65	464	27.88
등 생	4	1.98	7	1.99	4	1.14	13	5.80	22	13.17	11	3.64	6	4.23	67	4.03
의 논 않 음	17	8.42	31	8.81	27	7.67	26	11.61	14	8.38	54	17.88	13	9.15	182	10.94
기 타	11	5.45	13	3.69	8	2.27	11	4.91	6	3.59	36	11.92	8	5.63	93	5.59

##### 2) 가치관의 차이 정도

가정에서 자신과 부모와의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24.7%, 차이가 심하다가 13.2%, 차이가 없다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26 > 가치관의 차이 정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차이가 심하다	21	10.40	50	14.20	26	9.45	38	16.96	18	10.78	45	14.90	23	16.20	221	13.28
차이가 다소 있다	131	64.85	230	65.34	166	60.36	119	53.13	99	59.28	123	40.73	72	50.70	940	56.49
그저 그렇다	40	19.80	55	15.63	55	20.00	59	26.34	38	22.75	131	43.38	33	23.24	411	24.70
차이가 없다	9	4.46	17	4.83	25	9.09	8	3.57	12	7.19	3	0.99	14	9.86	88	5.29

##### 3)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 표-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화목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2%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가 23.3%, 언제나 화목하다가 15.2%, 비교적



화목하지 못하다가 3.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72.4 %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27 > 가정의 분위기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언제나 화목하다	28	13.86	45	12.78	43	15.64	40	17.86	25	14.97	54	17.88	19	13.38	254	15.26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121	59.90	207	58.81	173	62.91	133	59.38	89	53.29	150	49.67	80	56.34	953	57.27
그저 그렇다	48	23.76	83	23.58	46	16.73	38	16.96	47	28.14	90	29.80	37	26.06	389	23.38
비교적 화목치 못하다	4	1.98	17	4.83	11	4.00	13	5.80	6	3.59	8	2.65	6	4.23	65	3.91

4) 가정에서의 문제점

신입생들 중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은 < 표-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7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제점이 없다가 19.7 %, 부모와의 의견 차이가 19.5 % 기타가 9.4 %, 가정불화가 5.7 %, 가족내의 질병이 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54.9 %, 해양과학대학이 46.7 %, 사범대학이 45.8 %, 사회과학대학이 44.6 %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28 > 가정에서의 문제점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문제	65	32.18	157	44.60	126	45.82	76	33.93	78	46.71	82	27.15	78	54.93	662	39.78
부모와의 의견 차이	29	14.36	65	18.47	37	13.45	60	26.79	31	18.56	84	27.81	19	13.30	325	19.53
가정 불 화	10	4.95	13	3.69	11	4.00	16	7.14	13	7.78	13	4.30	19	13.30	95	5.71
가족내의 질병	7	3.47	10	2.84	15	5.45	8	3.57	3	1.80	29	9.60	6	4.23	78	4.69
기 타	35	17.33	40	11.36	20	7.27	13	5.80	11	6.59	31	10.26	7	4.93	157	9.44
문제점이 없다	54	26.73	57	16.19	62	22.55	51	22.77	28	16.77	63	20.86	13	9.15	328	19.71

5) 부모의 양육태도

< 표-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2.6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방임적이다가 22.2 %, 전위적이다가 13.5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학이 68.3%, 야간강좌부가 62.6%, 인문대학이 61.8%, 농과대학이 58.9%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29 > 부모의 양육태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민주적이다	125	61.88	183	51.99	188	68.36	132	58.93	86	51.50	73	24.17	89	62.68	876	52.64
방임적이다	41	20.30	69	19.60	31	11.27	41	14.91	36	21.56	123	40.73	29	20.42	370	22.24
전위적이다	20	9.90	54	15.34	33	12.00	33	12.00	25	14.97	44	14.57	16	11.27	225	13.52
기 타	16	7.92	36	10.23	20	7.27	16	7.14	18	10.78	62	20.53	8	5.63	176	10.58

6) 부모의 기대정도

신입생들의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정도를 살펴보면 < 표-3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다가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17.9%, 부응하기 힘들다가 5.4%, 비교적 낮다가 1.2%, 관심이 거의 없다가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신입생들의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학이 78.1%, 해양과학대학이 77.2%, 농과대학이 76.7%, 사회과학대학이 75.5% 등의 순이며, 인문대학이 6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30 > 부모의 기대정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응하기 힘들	8	3.96	14	3.98	6	2.18	8	3.57	11	6.59	31	10.26	13	9.15	91	5.47
비교적 높음	137	67.82	266	75.57	215	78.18	172	76.79	129	77.25	217	71.85	101	71.13	1,237	74.34
그저 그렇다	56	27.72	60	17.05	51	18.55	39	17.41	24	14.37	49	16.23	20	14.08	299	17.97
비교적 낮음	1	0.50	6	1.70	2	0.73	3	1.34	2	1.20	1	0.33	5	3.52	20	1.20
관심이 거의 없			5	1.42			2	0.89	1	0.60	4	1.32	3	2.11	15	0.90

7) 친구의 수

사귀고 있는 친구는 몇 명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몇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다가 32.2%, 없다가 3.0%, 필요성을 못느낀다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1 〉 친구의 수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많음	59	29.21	105	29.83	78	28.36	61	27.23	56	33.53	139	46.03	38	26.76	536	32.21
넉넉있음	141	69.80	233	66.19	191	69.45	143	63.84	100	59.88	139	46.03	100	70.42	1,047	62.92
없음	1	0.50	4	1.14	3	1.09	10	4.46	7	4.19	23	7.62	3	2.11	51	3.06
필요없음	1	0.50	5	1.42	3	1.09	10	4.46	4	2.40	1	0.33	1	0.70	25	1.50

## 8) 대인관계의 만족도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의 만족도는 〈 표-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 곤란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주 원만이 19.8%, 약간 어색하다가 16.7%, 어색한 점이 많아 힘들다가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2 〉 대인관계의 만족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아주 원만	32	15.84	67	19.03	45	16.36	49	21.88	42	25.15	64	21.19	32	22.54	331	19.89
별곤란이 없다	124	61.39	224	63.64	182	66.18	128	46.55	90	53.89	162	53.64	90	63.38	1,000	60.18
약간 어색하다	35	17.33	54	15.34	37	13.45	38	13.83	29	17.37	70	23.18	15	10.56	278	16.71
어색한 점이 많아 힘들다	11	5.45	5	1.42	9	3.27	9	4.02	5	2.99	6	1.99	5	3.52	50	3.00

## 9)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성이나 사교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려움이 없다가 25.7%, 자신의 지나친 소극성이 20.1%, 부자유스런 언동이 6.7%, 열등감, 우월감이 각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3 〉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신의 지나친 소극성	46	22.77	72	20.45	46	16.73	44	19.64	21	12.57	84	27.81	22	15.49	335	20.13		
사교성이나 사교기술 부족	61	30.20	96	27.27	92	33.45	66	29.46	56	33.53	69	22.85	42	29.58	482	28.97		
부자유스런 행동	5	2.48	15	4.26	8	2.91	12	5.36	12	7.19	53	17.55	7	4.93	112	6.73		
열등감	16	7.92	16	4.55	16	5.82	14	6.25	17	10.18	10	3.31	11	7.75	100	6.01		
우월감	2	0.99	72	20.45	6	2.18			6	3.59	12	3.97	2	1.41	100	6.01		
어려움이 없다	54	26.73	53	15.06	81	29.45	83	37.05	44	26.35	70	23.18	44	30.99	429	25.78		
기 타	14	6.93	28	7.95	13	4.73	5	2.23	9	5.39	4	1.32	14	4.64	87	5.23		

10) 원하는 친구의 유형

원하는 친구의 유형을 묻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응답한 학생이 6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16.5%, 학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10.1%, 직업적 흥미가 동일한 친구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4 〉 원하는 친구의 유형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17	8.42	38	10.80	29	10.55	23	10.27	13	7.78	23	7.62	26	18.31	169	10.16		
직업적 흥미가 동일한 친구	2	0.99	13	3.69	8	2.91	15	6.70	1	0.60	19	6.29	3	2.11	61	3.67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139	68.81	231	65.63	166	60.36	159	70.98	118	70.66	207	68.54	85	59.86	1105	66.41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37	18.33	58	16.48	64	23.27	23	10.27	28	16.77	38	12.58	28	19.72	276	16.59		
기 타	2	0.99	5	1.42	1	0.36	3	1.34	4	2.40	15	4.97			30	1.80		

11)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 표-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에게 장래문제에 관하여 혼자 결심하기 어려울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가족과 의논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와 의논한다가 30.8%, 선배와 의논한다가 12.9%,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과 의논한다가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의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회과학대학이 63.3%, 농과대학이 50.0%, 사범대학이 45.0% 등의 순이며, 이공대학이 1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35 〉 장래문제에 대한 의논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가	족	80	39.60	128	63.37	124	45.09	112	50.00	59	35.33	53	17.55	56	39.44	612	36.78
친	구	72	35.64	119	36.36	68	24.73	60	26.79	55	32.93	113	37.42	44	30.99	531	30.83
선	배	15	7.43	46	13.07	20	7.27	17	7.59	24	14.37	74	24.50	19	13.38	215	12.92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	과	22	10.89	29	8.24	44	16.00	22	9.82	18	10.78	49	16.23	20	14.08	204	12.26
기	타	13	6.44	20	5.68	14	5.09	13	5.80	11	6.59	13	4.30	3	2.11	87	5.23

12) 이성교제의 경험

이성교제의 경험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라는 학생이 5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몇번 있었다가 20.6%, 한번 있었다가 20.1%, 자주 있었다가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여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대, 사범대가 각각 71.7%, 69.4%로 가장 높고 남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해양과학대학과 이공대학이 각각 39.5%, 31.1%로 타대학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신입생 중 여학생들은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편이나 남학생인 경우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표-36 〉 이성교제의 경험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없	다	145	71.78	195	55.40	191	69.45	109	48.66	66	39.52	94	31.13	69	48.59	869	52.22
한번 있었다		32	15.84	58	16.48	45	16.36	50	22.32	47	28.14	68	22.52	36	25.35	336	20.19
몇번 있었다		17	8.42	78	22.16	31	11.27	54	24.11	48	28.74	84	27.81	31	21.83	343	20.61
자주 있었다		5	2.48	17	4.83	4	1.45	11	4.91	3	1.80	56	18.54	6	4.23	102	6.13

13) 이성과의 관계 결정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고 싶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가 되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한다라는 학생이 3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폭넓은 교제를 원한다가 29.2%, 이성교제를 해보겠다고 9.9%, 사귄 생각이 없다가 9.3%, 교수님과 선배의 조언을 받고 싶다가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37 > 이성과의 관계 결정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사귄 생각이 없다	13	6.44	33	9.38	21	7.64	28	12.50	10	5.99	39	12.91	12	8.45	156	9.38
이성교제를 해보겠다	8	3.96	32	9.09	12	4.36	15	6.70	23	13.77	62	20.53	13	9.15	165	9.92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가 되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한다	84	41.58	138	39.20	97	35.27	93	41.52	90	53.89	67	22.19	64	45.07	633	38.04
자연스럽고 폭넓은 교제를 원한다	71	35.15	97	27.56	106	38.55	57	25.45	30	17.96	94	31.13	32	22.54	487	29.27
교수님과 선배의 조언을 받고 싶다	12	5.94	20	5.68	19	6.91	19	8.48	5	2.99	21	6.62	16	11.27	112	6.73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기성장을 도모하겠다	13	6.44	15	4.26	12	4.36	12	5.36	8	4.79	19	6.29	5	3.52	84	5.05

5. 大學 및 學科志望

1) 제주대학교 지원동기

신입생들이 제주대학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는 < 표-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타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가 3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서가 25.6%, 기타가 13.9%, 졸업후 사회적 지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가 8.8%, 우리 지방의 명문대학이기 때문인가 8.3%, 권위있는 교수가 있기 때문인가 2.9%, 등록금이 싸다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타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이공대학이 51.9%, 사범대학이 46.1, 야간강좌부가 44.3% 등의 순이며, 해양과학대학이 2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38 > 제주대학교 지원동기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등록금이 싸다	3	1.49	5	1.42	6	2.18	10	4.46	5	2.99	9	2.98	6	4.23	44	2.64
우리 지방의 명문대학이기 때문	17	8.42	34	9.66	20	7.27	28	12.50	18	10.78	6	1.99	16	11.27	139	8.35
권위있는 교수 가 있기 때문			15	4.26	4	1.45	8	3.57	9	5.39	11	3.64	2	1.41	49	2.94
졸업후 사회적 지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	5	2.48	38	10.80	33	12.00	30	13.39	24	14.37	9	2.98	9	6.34	148	8.89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	72	35.64	99	28.13	42	15.27	72	32.14	56	33.53	52	17.22	33	23.24	426	25.60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72	35.64	109	30.97	127	46.18	50	22.32	35	20.96	157	51.99	63	44.37	613	36.84
기 타	32	15.84	46	13.07	38	13.82	25	11.16	20	11.98	58	19.21	13	9.15	232	13.94

2) 학과 결정 요인

< 표-39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을 살펴보면, 적성에 맞음이 3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업적 전망이 25.7%, 입학 가능성이 13.0%, 이상실현이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이공대학이 56.9%, 사범대학이 41.4%, 인문대학이 40.5%, 농과대학이 39.2% 등의 순이다.

< 표-39 > 학과 결정 요인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42	20.79	137	38.92	63	22.91	48	21.43	71	42.51	13	4.30	54	38.03	428	25.75
적성에 맞음	82	40.59	86	24.43	114	41.45	88	39.29	41	24.55	172	56.95	41	28.87	624	37.50
입학 가능성	33	16.34	40	11.36	33	12.00	29	12.95	19	11.38	49	16.23	14	9.86	217	13.04
이 상 실 현	22	10.89	52	14.77	30	10.91	26	11.61	20	11.98	35	11.59	20	14.08	205	12.32
기 타	23	11.39	31	8.81	26	9.45	33	12.00	15	8.98	32	10.60	13	9.15	173	10.40

3)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 표- 4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지원하기 전에 지망학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강 알고 있었다가 5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잘 몰랐었다가 27.1%, 잘 알고 있었다가 9.1%, 전혀 몰랐었다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신입생들 중 약 70%는 어느 정도 자신의 지망학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40 〉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알고 있었다	7	3.47	41	11.65	34	12.36	35	15.63	12	7.19	11	3.64	12	8.45	152	9.13
대강 알고 있었다	112	55.45	204	57.95	167	60.73	147	65.63	93	55.69	157	51.99	89	62.68	969	58.23
잘 몰랐었다	74	1.98	90	25.57	65	23.64	32	14.29	49	29.34	103	34.11	39	27.46	452	27.16
전혀 몰랐었다	8	3.96	9	2.56	7	2.55	10	4.46	12	7.19	31	10.26	2	1.41	79	4.75

4) 학과 선택 시기

〈 표-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 시기를 보면, 학력고사 점수 발표 직후가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교재학시가 28.7%, 입학원서 접수 직전이 27.8%,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 중 약 60.0% 이상이 학력고사가 발표된 이후에 지망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과도 연관되는 경향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보다 학력고사 점수에 학과를 맞추는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41 〉 학과 선택 시기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력고사 점수 발표 직후	85	42.08	152	43.18	99	36.00	92	41.07	69	41.32	58	19.21	57	40.14	612	36.78
입학원서 접수 직	40	19.80	76	21.59	59	21.45	50	22.32	58	34.73	149	49.34	31	21.83	463	27.82
고교재학시	62	30.69	101	28.69	89	32.36	79	35.27	35	20.96	66	21.85	47	33.10	479	28.79
중학교 또는 그 이전	15	7.43	23	6.53	25	9.09	3	1.34	5	2.99	29	9.50	7	4.93	107	6.43



5) 선택 학과에 대한 만족도

〈 표- 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선택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다가 38.9%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가 37.6%, 현재는 잘 모르겠다가 17.0%, 불만이다가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서 60.0% 이상의 학생들은 선택학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족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학이 46.9%, 야간강좌부가 45.7%, 농과대학이 45.0%, 사회과학대학이 44.0% 등의 순이다.

〈 표- 42 〉 선택 학과에 대한 만족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만족하다	80	39.60	155	44.03	129	46.91	101	45.09	52	31.14	66	21.85	65	45.77	648	38.94
보통이다	73	36.14	132	37.50	84	30.55	68	30.36	72	43.11	145	48.01	52	36.62	626	37.62
불만이다	9	4.46	19	5.40	11	4.00	20	8.93	7	4.19	35	11.59	4	2.82	105	6.31
현재는 잘 모르겠다	40	19.80	46	13.07	50	18.18	34	15.18	36	21.56	56	18.54	21	14.79	283	17.01

6) 졸업정원제에 대한 부담감

〈 표- 4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졸업정원제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별로 없다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소있다가 26.6%, 전혀없다가 20.7%, 대단히 크다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54.2%, 농과대학이 51.7%, 인문대학이 51.4%, 사범대학이 49.8% 등의 순이다.

그러나 약 30%의 학생들이 부담감을 다소나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졸업정원제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 표- 43 〉 졸업정원제에 대한 부담감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전혀없다	24	11.88	67	19.03	55	20.00	53	23.66	24	14.37	97	32.12	25	17.61	345	20.73
별로없다	104	51.49	175	49.72	137	49.82	116	51.79	68	40.72	107	35.43	77	54.23	784	47.12
다소있다	68	33.66	94	26.70	76	27.64	47	20.98	70	41.92	55	18.21	34	23.94	444	26.68
대단히 크다	5	2.48	11	3.13	6	2.18	8	3.57	5	2.99	41	13.58	6	4.23	82	4.93

### 6. 大學生活

#### 1) 입학후 거주 예정지

< 표- 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입학후 거주 형태를 보면, 자가 52.3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취가 28.5%, 친척·친지대이 9.1%, 하숙이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비율을 보면, 사범대학이 59.2%로 인문대학이 57.9%, 사회과학대학이 55.9%, 해양과학대학이 50.3%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 44 > 입학후 거주 예정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117	57.92	197	55.97	163	59.27	99	44.20	84	50.30	145	48.01	66	46.48	871	52.34
하 숙	4	1.98	21	5.97	14	5.09	19	8.48	19	11.38	44	14.57	2	1.41	123	7.39
친척·친지대	15	7.43	32	9.09	13	4.73	19	8.48	12	7.19	39	12.91	23	16.20	153	9.19
자 취	64	31.68	95	26.99	81	29.45	78	34.82	51	30.54	59	19.54	47	33.10	475	28.55
기 타	2	0.99	4	1.14	4	1.45	9	4.02	1	0.60	12	3.97	4	2.82	36	2.16

#### 2)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난제

대학 전 기간을 통해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 표- 4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래 진학문제가 2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업문제가 20.9%, 가정문제가 13.2%, 성격 및 사회적 적응 문제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진학문제와 학업문제를 난제라고 지적한 학생들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신입생들은 앞으로의 진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5 >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난제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가 정 문 제	19	9.41	54	15.34	31	11.27	27	12.05	30	17.96	39	12.91	21	14.79	221	13.28
건 강 문 제	12	5.94	14	3.98	11	4.00	14	6.25	2	1.20	29	9.60	10	7.04	92	5.53
병 역 문 제	7	3.47	43	12.22	4	1.45	30	13.39	22	13.17	39	12.91	15	10.56	160	9.62
학 업 문 제	27	13.37	65	18.47	47	17.09	41	18.30	47	28.14	85	28.15	36	25.35	348	20.91
성격 및 사회적 적응 문제	42	20.79	45	12.78	44	16.00	32	14.29	12	7.19	23	7.62	13	9.15	211	12.68
장래진학문제	74	36.63	95	26.99	90	32.73	44	19.64	43	25.75	73	24.17	31	21.83	450	27.04
기 타	11	5.45	21	5.97	22	8.00	19	8.48	11	6.59	13	4.30	16	11.27	113	6.79

3) 대학생활의 비중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떤 면에 비중을 둘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 표-4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적 지식습득이 3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넓은 교양이 26.9%, 장래 직업인으로서의 준비가 23.0%, 정서적 성숙이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지식 습득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이공대학이 50.0%, 야간강좌부가 38.0%, 사범대학이 37.4%, 인문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이 각각 37.1%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표-46 > 대학생활의 비중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 지식 습득	75	37.13	107	30.40	103	37.45	63	28.13	62	37.13	151	50.00	54	38.03	615	36.96
폭넓은 교양	71	35.15	107	30.40	83	30.18	51	22.77	30	17.96	69	22.85	38	26.76	449	26.98
장래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33	16.34	96	27.27	38	13.82	60	26.79	51	30.54	72	23.84	33	23.24	383	23.02
정서적 성숙	17	8.42	20	5.68	25	9.09	36	16.07	14	8.38	7	2.32	13	9.15	132	7.93
기 타	6	2.97	9	2.56	4	1.45	8	3.57	9	5.39	3	0.99	4	2.82	43	2.58

4) 희망하는 씨클활동분야

< 표-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입학후 희망하는 씨클활동분야를 보면, 취미교양분야가 3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술분야가 17.7%, 봉사활동분야가 14.6%, 스포츠활동분야가 12.3%, 생각한바 없다가 7.3%, 참여하지 않겠다가 4.9%, 종교분야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0.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씨클에 다양하게 응답한 점으로 보아 신입생 대부분이 씨클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47 > 희망하는 씨클활동분야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술분야	46	22.77	63	17.90	60	21.82	22	9.82	19	11.38	63	20.86	23	16.20	296	17.79
봉사활동분야	20	9.99	48	13.64	25	9.09	36	16.07	19	11.38	74	24.50	21	14.79	243	14.60
취미교양분야	79	39.11	110	31.25	78	28.36	89	39.73	52	31.14	54	17.88	45	31.69	507	30.47
종교분야	6	2.97	21	5.97	19	6.91	10	4.46	11	5.58	4	1.32	4	2.82	75	4.51
스포츠활동분야	12	5.94	42	11.93	29	10.55	20	8.93	31	18.56	58	19.21	14	9.86	206	12.38
기 타	7	3.47	6	1.70	8	2.91	16	7.14	11	5.58	14	4.64	9	6.34	71	4.27
참여하지 않겠다	7	3.47	29	8.24	9	3.27	14	6.25	5	2.99	2	0.66	16	11.27	82	4.93
생각한 바 없다	17	8.42	17	4.83	27	9.82	10	4.46	17	10.18	25	8.28	10	7.04	123	7.39

5)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 표-4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바라는 교수와의 인간관계를 보면 진지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가 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수-학생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가 29.5%, 학문과 자기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바란다가 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48 >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과 자기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바란다	58	28.71	105	29.83	80	29.09	53	23.66	46	27.54	42	13.91	45	31.69	429	25.78
교수-학생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	62	30.69	123	34.94	73	26.55	76	33.93	53	31.74	71	23.51	33	23.24	491	29.51
진지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64	31.68	87	24.72	83	30.18	59	26.34	53	31.74	111	36.75	52	36.62	509	30.59
교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 다닌다	4	1.98	9	2.56	8	2.91	24	10.71	2	1.20	5	1.66	6	4.23	58	3.49
거리감이 느껴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될것 같다	2	0.99	8	2.27	5	1.82	6	2.68	6	3.59	28	9.27	6	4.23	61	3.67
기 타	12	5.94	20	5.68	26	9.45			5	2.99	45	14.90			108	6.49

6) 독서계획

< 표-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독서계획을 보면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하겠다가 7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대로 하겠다가 15.9%로 나타났다.

< 표-49 > 독서계획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해서 하겠다	33	16.34	61	17.33	56	20.36	21	9.38	17	10.18	58	19.21	19	13.38	265	15.93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하겠다	158	78.22	267	75.85	193	70.18	188	83.93	137	82.04	205	67.88	108	76.06	1,256	75.48
기 타	1	0.50	11	3.13	8	2.91	9	4.02	11	6.59	30	9.93	15	10.56	85	5.11

## 7) 독서종류

〈표-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독서종류를 보면, 교양도서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34.9%, 추천도서가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0〉 독서종류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과 관련된 도서	68	33.66	115	32.67	69	25.09	86	38.39	75	44.91	110	36.42	58	40.85	581	34.92
교양도서	112	55.45	200	56.82	153	55.64	110	49.11	65	38.92	132	43.71	71	50.00	843	50.66
추천도서	11	5.45	20	5.68	24	8.73	20	8.93	21	12.57	58	19.21	13	9.15	167	10.04

## 8)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표-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을 보면, 1·2학년 때 주로 제1외국어 주력이 4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시로 하겠다가 24.5%,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가 15.0%, 전공과 같은 비중으로 하겠다가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신입생들은 어학실력이 학문을 계속하는데 있어서나 졸업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학년 때부터 주력해서 공부해야 될 과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표-51〉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1·2학년 때 주로 제1외국어 주력	80	39.60	195	55.40	119	43.27	104	46.43	66	39.52	122	40.40	79	55.63	765	45.97
수시로 하겠다	61	30.20	77	21.88	68	24.73	61	27.23	43	25.75	56	18.54	43	30.28	409	24.58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28	9.27	29	8.24	35	12.73	33	14.73	36	21.56	80	26.49	10	7.04	251	15.08
전공과 같은 비중으로 하겠다	22	7.28	21	5.97	29	10.55	19	8.48	18	10.78	41	13.58	10	7.04	160	9.62

## 9) 어학훈련 방법

〈표-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어학훈련 방법을 보면, 강의를 통해서가 2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플책 이용이 18.2%, 학원을 통해서가 12.9%, 학교특강을 통

해서가 7.3%, 어학실습을 통해서가 7.1%, 크립을 통해서가 4.0%,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52 > 어학훈련 방법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원을 통해서	19	9.41	63	17.90	17	6.18	34	15.18	30	17.96	33	10.93	19	13.38	215	12.92
크립을 통해서	3	1.49	10	2.84	7	2.55	10	4.46	6	3.59	29	9.60	3	2.11	68	4.09
강의를 통해서	42	20.79	89	25.28	59	21.45	61	27.23	39	23.35	61	20.20	39	27.46	390	23.44
토플책 이용	17	8.42	61	17.33	57	20.73	39	17.41	27	16.17	72	23.84	30	21.13	303	18.21
카세트 이용	51	25.25	63	17.90	60	21.82	37	16.52	36	21.56	73	24.17	30	21.13	350	21.03
외국인과 대화	6	2.97	13	3.69	9	3.27	6	2.68			2	0.66	2	1.41	38	2.28
어학실습을 통해	22	10.89	21	5.97	19	6.91	19	8.48	15	8.98	11	3.64	12	8.45	119	7.15
특강을 통해	42	20.79	10	2.84	16	5.82	12	5.36	14	8.38	21	6.95	7	4.93	122	7.33

10) 입학후 여가선용 계획

< 표-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입학후 여가선용 계획을 보면, 특기 및 취미활동이 2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가 15.8%, 학업보충이 12.3%, 스포츠가 8.4%, 교수·친구·이성과의 만남이 8.3%, 교양·정서함양이 7.9%, 어학훈련이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53 > 입학후 여가선용 계획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독서	31	15.35	61	17.33	63	22.91	35	15.63	23	13.77	22	7.28	28	19.72	263	15.81
특기 및 취미활동	50	24.75	77	21.88	52	18.91	62	27.68	50	29.94	120	39.74	32	22.54	443	26.62
스포츠	6	2.97	21	5.97	10	3.64	32	14.29	14	8.38	48	15.89	9	6.34	140	8.41
교수·친구·이성 과의 만남	15	7.43	30	8.52	23	8.36	22	9.82	23	13.77	19	6.29	7	4.93	139	8.35
어학훈련	25	12.38	38	10.80	14	5.09	11	4.91	6	2.68	23	7.62	12	8.45	129	7.75
학업보충	26	12.87	35	9.94	33	12.00	23	10.27	24	10.71	53	17.55	11	7.75	205	12.32
교양·정서함양	21	10.40	37	10.51	42	15.27	10	4.46	14	8.38	8	2.65			132	7.93
봉사활동	2	0.99	6	1.70	1	0.36	7	3.13	3	1.34	1	0.33	22	15.49	42	2.52
부직활동	8	3.96	12	3.41	10	3.64	10	4.46	4	1.79	3	0.99			47	2.82
기타	2	0.99	4	1.14	1	0.36	6	2.68	6	2.68	1	0.33			20	1.20

어학훈련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12.3%, 사회과학대학이 10.8%, 야간강좌부가 8.45%, 이공대학이 7.6%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대학이 학문의 성격상 어학실력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교내외 학생활동에의 참여

〈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교내외 학생활동에의 참여를 보면,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가 6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가 26.2%, 참여하지 않겠다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4〉 교내외 학생활동에의 참여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57	28.22	95	26.99	58	21.09	60	26.79	55	32.93	86	28.48	26	18.31	437	26.26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129	63.86	225	63.94	187	68.00	141	62.95	105	62.87	199	65.89	106	74.65	1,092	65.63
참여하지 않겠다	8	3.96	9	2.56	10	3.64	18	8.04	6	3.59	15	4.97	10	7.04	76	4.57

12)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표-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가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소 긍지를 느낀다가 36.4%, 대단한 긍지를 느낀다가 16.4%, 다소 부끄럽다가 4.2%, 매우 부끄럽다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5〉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대단한 긍지를 느낀다	16	7.92	62	17.61	42	15.27	52	23.21	30	17.96	48	15.89	24	16.90	274	16.47
다소 긍지를 느낀다	80	39.60	125	35.51	94	34.18	92	41.07	60	35.93	99	32.78	57	40.14	607	36.48
그저 그렇다	82	40.59	121	34.38	110	40.00	63	28.13	60	35.93	126	41.72	49	34.51	611	36.72
다소 부끄럽다	6	2.97	11	3.13	6	2.18	5	2.23	9	5.39	27	8.94	7	4.93	71	4.27
매우 부끄럽다	1	0.50	6	1.70	1	0.36	7	3.13	6	3.59	2	0.66	5	3.52	28	1.68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50.0% 이상의 학생들이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지방 대학생들이 품고 있는 핸디캡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표-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을 보면,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이 14.8%, 장학금제도가 11.1%, 해외유학이 10.0%, 교내 학생싸클이 7.8%, 대학시절 및 교수진용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유학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 10.0%나 되는 것은 해외유학이 자유화된 이후 유학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6〉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	95	47.03	170	48.30	92	33.45	87	38.84	79	47.31	136	45.03	65	45.77	724	43.51
장학금 제도	12	5.94	29	8.24	29	10.55	21	9.38	19	11.38	53	17.55	22	15.49	185	11.12
해외유학	27	13.37	28	7.95	20	7.27	17	7.59	17	10.18	47	15.56	11	7.75	167	10.04
교내학생싸클	12	5.94	29	8.24	16	5.82	34	15.18	13	7.78	21	6.95	6	4.23	131	7.87
대학시절 및 교수진용	4	1.98	11	3.13	13	4.73	5	12.23	11	6.59	23	7.62	1	0.70	68	4.09
학칙					1	0.36	2	0.89	1	0.60	1	0.33	1	0.70	6	0.36
전공학과 교육내용	38	18.81	55	15.63	51	18.55	35	15.63	20	11.98	19	6.29	29	13.38	247	14.84
졸업정원제	2	0.99	4	1.14	3	1.09	10	4.46	2	1.20	1	0.33	2	1.41	24	1.44
기 타	2	0.99	26	7.39	5	1.82	6	2.68	5	2.99	1	0.33	5	3.52	50	3.00

7. 卒業後の 計劃

1) 대학졸업 후의 계획

〈표-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취직이 5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이 31.6%, 해외유학이 6.1%, 타 대학이나 타학과에 편입이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후의 계획을 취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야간강좌부가 57.7%, 이공대학이 57.6%, 사회과학대학이 52.8%, 사범대학이 48.7%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표-57〉 대학졸업 후의 계획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취 직	98	48.51	186	52.84	134	48.73	90	40.18	81	48.50	174	57.62	82	57.75	845	50.78
대학원 진학	70	34.65	90	25.57	101	36.73	78	34.82	55	32.93	92	30.46	41	28.87	527	31.67
해외유학	12	5.94	17	4.83	7	2.55	11	4.91	15	8.98	32	10.60	8	5.63	102	6.13
타 대학이나 타학과에 편입			12	3.41			2	0.99	2	1.20	1	0.33	5	3.52	22	1.32
기 타	9	4.46	47	13.35	9	3.27	38	16.96	14	8.38	3	0.99	6	4.23	126	7.57



2)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 표- 5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을 보면, 교육자가 2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무원이 11.6%, 농·임·수산업이 10.1%, 교수·연구원이 9.1%, 서비스업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를 활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58 > 대학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농·임·수산업	1	0.5	12	3.41	1	0.36	61	27.23	47	28.14	41	13.58	6	4.23	169	10.16
공업·건설업	1	0.5	12	3.41	2	0.73	11	4.91	15	8.98	30	9.93	5	3.52	76	4.57
서비스업	16	7.92	43	12.22	2	0.73	13	5.80	7	4.19	12	3.97	14	9.86	107	6.43
금융회사원			24	6.82	1	0.36	5	2.23	4	2.40	23	7.62	15	10.56	72	4.33
공무원	20	9.90	62	17.61	8	2.91	28	12.50	20	11.98	21	6.95	35	24.65	194	11.66
교육자	79	39.11	41	11.65	169	61.45	27	12.05	15	8.98	89	29.47	14	9.86	434	26.09
정치법률	2	0.99	30	8.52	5	1.82	11	4.91	5	2.99	2	0.66	23	16.20	78	4.69
언론	32	15.84	21	5.97	8	2.91	5	2.23	4	2.40	1	0.33	7	4.93	78	4.69
종교인	1	0.5	4	1.14			9	4.02			2	0.66	1	0.70	17	1.02
군인					1	0.36	7	3.13	10	5.99	1	0.33			19	1.14
사업가·경제인	3	1.49	43	12.22	2	0.73	7	3.13	7	4.19	15	4.97	20	14.08	97	5.83
문학예술인	12	5.94	5	1.42	16	5.82	4	1.79	5	2.99	4	1.32			46	2.76
교수·연구원	12	5.94	25	7.10	31	11.27	22	9.82	10	5.99	52	17.22	1	0.70	153	9.19
기타	23	11.39	30	8.52	2	0.73	9	4.02	18	10.78	9	2.98	1	0.70	92	5.53

3) 직업 선택시의 기준

< 표- 5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직업 선택시의 기준을 보면,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이 3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래 전망이 13.4%, 직업의 안전성이 13.1%, 경제적 인 면이 12.8%, 사회에의 봉사가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별 비율을 보면, 인문대학이 49.5%, 사범대학이 47.2%, 사회과학대학이 34.0% 등의 순이며, 해양과학대학이 1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표-59 > 직업 선택시의 기준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 면	19	9.41	40	11.36	16	5.82	32	14.29	40	23.95	45	14.90	22	15.49	214	12.86		
사회적 지위	6	2.97	14	3.98	4	1.45	15	6.70	6	3.59	13	4.30	10	7.04	68	4.09		
사회에의 봉사	12	5.94	54	15.34	23	8.36	10	4.46	9	5.39	46	15.23	13	9.15	167	10.04		
장래 전망	23	11.39	59	16.76	22	8.0	42	18.75	23	13.77	32	10.60	22	15.49	223	13.40		
직업의 전문성	9	4.46	26	7.39	11	4.0	23	10.27	18	8.04	41	13.58	12	8.45	140	8.41		
직업의 안전성	17	8.42	39	11.08	41	14.91	32	14.29	26	11.61	38	12.58	25	17.61	218	13.15		
자신의 적성 및 소	100	49.50	120	34.09	130	47.27	59	26.34	38	16.96	58	19.21	38	26.76	543	32.63		
기 타	3	1.49			5	1.82	6	2.68	3	1.34	29	9.60			46	2.76		

4)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 표-6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을 보면,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4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리 탐구에 헌신하는 생활이 21.0%,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이 각각 11.1%,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이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60 >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항목별	대학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21	10.40	54	15.34	31	11.27	19	8.48	14	8.38	23	7.62	23	16.20	185	11.12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121	59.90	159	45.17	101	36.73	97	43.30	64	38.32	129	42.72	59	41.55	730	43.87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36	17.82	19	5.40	39	14.18	24	10.71	13	7.78	31	10.26	24	16.90	186	11.18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15	7.43	57	16.19	66	24.0	45	20.09	38	22.75	115	38.09	14	9.86	350	21.03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9	4.46	50	14.20	9	3.27	34	15.18	35	20.96	4	1.32	22	15.49	163	9.80		

5)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 표-6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를 보면, 정치문

제가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가 28.3%, 사회질서가 21.5%, 부정부패가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61 〉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		야간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문제	69	34.16	105	29.83	63	22.91	57	25.45	48	28.74	95	31.46	35	24.65	472	28.37
정 치 문 제	48	23.76	105	29.83	76	27.64	61	27.23	59	35.33	109	36.09	42	29.58	500	30.05
부 정 부 패	48	23.76	67	19.03	42	15.27	36	16.07	25	14.97	48	15.89	36	25.35	302	18.15
사 회 질 서	37	18.32	75	21.31	70	25.45	64	28.57	34	20.36	49	16.23	29	20.42	358	21.51

## Ⅳ. 結 論

### 1. 要 約

1985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각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人的事項

(1) 1985 학년도 신입생의 남·여학생 비율은 1,834명 중 남학생이 66.0% (1,211명), 여학생은 34.0% (62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91.2%가 만 17세, 18세, 19세, 20세 층에 속하고 있다.

(2) 본적지 및 주된 성장지를 보면, 제주도 출신이 92.3%이며, 주된 성장지역시 94.0%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종교는 무종교자가 5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가 23.5%, 개신교가 8.1%, 천주교가 7.2%의 순이며, 신입생 전체의 18.2%가 입학하기 전 1년 이상 재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家族事項

(1) 신입생들의 부모의 생존여부를 보면, 부모생존이 84.4%, 편모 10.1%, 편부 3.9%, 부모사망이 1.1%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75.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보호자의 연령은 50대와 40대가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29.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신입생들의 가족수는 6명인 경우가 27.4%로 가장 많으며, 출생 순위는 신입생들의 43.9%가 첫째 또는 둘째 아들 및 딸들로 나타났다.

(4) 신입생 가족 거주지는 95.9%가 도내이며, 도외는 4.1%에 불과하고, 보호자의 직업은 5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업이 17.6%, 공무원이 7.1%, 교육공무원이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신입생들의 주거 형태는 86.4%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주거 방식은 전체의 79.0%가 자기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經濟事情

(1) 신입생들의 가정의 월 수입은 20~29만원 이상이 2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만원 이하가 26.5%, 30~39만원이 2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비 부담은 신입생 전체의 87.4%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입생들의 가정경제 수준은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학생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35.6%, 곤란하다가 10.3%, 매우 곤란하다가 5.1%로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소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비 충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전체의 54.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학생은 17.9%를 차지하고 있다.

(4) 부직활동 참여여부는 여건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학생이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직희망 이유는 사회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0.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한달 평균 쓰는 용돈은 5천원에서 1만원이 3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원 이하가 22%, 1만원에서 2만원이 17.9%, 2만원에서 3만원이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家族 및 對人關係

(1) 신입생들이 가족 중 개인적인 일을 주로 의논하는 상대자는 어머니가 29.0%, 형·누나·오빠·언니가 27.8%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자신과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 정도는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2)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비교적 화목하다가 53.2%, 그저 그렇다가 23.3%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은 39.7%로 나타났다.

(3) 신입생들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면, 민주적이다가 52.6%, 방임적이다가 22.2%, 권위적이다가 1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4)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신입생 중 79.9%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원만하거나 별 곤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입생의 95.1%가 친구가 많거나 몇몇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원하는 친구의 유형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6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같이할 수 있는 친구가 10.1%의 순으로 응답했다.

(5)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사교성이나 사교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6) 신입생들이 장래문제에 대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의 상담자는 가족이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가 30.8%, 선배가 12.9%,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성과의 관계 결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가 되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한다가 3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폭넓은 교제를 원한다가 29.2%, 이성교제를 해보겠다가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2.2%를 차지하고 있다.

#### 5) 大學 및 學科 志望

(1)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으로 타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가 36.8%, 입학 가능성을 고려해서가 25.6%로 나타났으며, 학과 결정 요인은 적성에 맞음이 37.5%, 직업적 전망이 25.7%, 입학 가능성이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지망 학과에 대한 지식정도는 대강 알고 있었다가 5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잘 몰랐었다가 27.1%, 잘 알고 있었다가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 시기는 학력 고사점수 발표 직후가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신입생들의 선택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가 38.9%이고, 보통이다가 37.6%, 현재는 잘 모르겠다가 1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정원제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7.1%로 나타났다.

#### 6) 大學生活

(1) 신입생들의 입학 후 거주 예정지는 자가가 5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취가 28.5%, 친척·친지택이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는 장래 진학문제가 2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업문제가 20.9%, 가정문제가 13.2%의 순으로 응답했다.

(2)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비중을 두고 싶은 것은 학문적 지식 습득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쉼활동 분야는 취미·교양 분야가 3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술분야가 17.7%, 봉사활동 분야가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신입생들이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는 진지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학생이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서계획은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하겠다가 7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독서종류는 교양도서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34.9%, 추천도서가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신입생들의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을 보면, 1·2학년 때 주로 제1외국어 주력이 4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시로 하겠다가 24.5%,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가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학훈련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가 2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입학 후 여가선용 계획을 보면, 특기 및 취미 활동이 2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가 15.8%, 학업보충이 12.3%, 스포츠가 8.4% 등의 순이다.

(6) 신입생들의 교내의 학생활동에의 참여를 보면,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가 65.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제주대학생으로서의 긍지에 대한 느낌은 그저 그렇다가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소 긍지를 느낀다가 36.4%, 대단한 긍지를 느낀다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신입생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이 14.8%, 장학금제도가 11.1% 등의 순이다.

#### 7) 卒業後의 計劃

(1) 신입생들의 졸업후의 계획으로는 취직이 5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이 31.6%, 해외유학이 6.1%, 타대학이나 타학과에 편입이 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은 교육자가 2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무원이 11.6%, 농·임·수산업이 10.1%, 교수·연구원이 9.1%, 서비스업이 6.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 신입생들의 직업 선택시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이 32.6%, 장래 전망이 13.4%, 직업의 안전성이 13.1%의 순이며,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으로는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43.8%,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이 21.0%,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이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30.0%로 가장 많고, 경제적 문제가 28.3%, 사회질서가 21.5%, 부정부패가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提 言

나타난 조사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비조달에 있어서 87.4%에 해당하는 학생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신입생들의 62.8%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부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장학금 지급의 확대와 각종 부직알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입생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비교적 화목하다가 57.2%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저 그렇다가 23.3%로 나타나고 있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지망 학과에 대하여 사전에 잘 몰랐다는 학생이 27.1%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전공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기준한 진학 지도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학과에 대한 확실한 사전 지식없이 학생들이 현재 대학생활에 얼마나 바람직하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진학문제와 학업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학업 및 진학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신입생의 80.0% 이상이 씨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씨클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다양한 씨클의 창설,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신입생들이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는 진지하고도 폭넓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 교수는 앞으로의 학생 지도에 있어서 지식전달의 목적 이외에 학생과의 충분한 대화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